



www.maggun.com

2018. 03 vol. 84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Let's Get It!

· **최인정** 전북도의원

· 이야기가 있는 소설 탁류길

· 한국GM

· 차림문화원 모던투어

· WCP **문지오**, Platz **이준원**

· 팝아티스트 **박태준**

· 겨울 만주기행, 발해를 찾아서

· 군산예총 **황대욱** 지회장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교육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협력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전국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미투(Me Too) / 위드유(With You)

최근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설마 하는 집단에서조차 ‘미투(나도 겪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때를 기다린 사람도 많을 터이고 어쩌면 뒤가 켜겨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성(性)과 관련된 추문은 어제 오늘 갑자기 드러난 문제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잠복해온 문제로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성 문제는 대개 권력적 상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많고 은밀히 이뤄지는 특성상 당사자의 주장 말고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피해자의 폭로가 있다 해도 명확한 조사가 쉽지 않고 응분의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매도당함으로써 울분을 속으로 삭여야만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의 미투 동참 사례가 견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의해 촉발된 미투 사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자 엘리트 집단인 검찰 내에서조차 성추행이 빈번했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대기업, 학계, 교육계, 체육계 등 급기야 종교계까지 가히 전방위적인 미투 동참운동이 봇물을 이루거나 이를 태세로 보인다. 혹자는 그 정도 일들은 남성 주도의 권위적 사회에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로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말하기도 한다. 특히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계는 순종이 요구되는 집단 특성상 폭로가 쉽지 않은데다가 유죄가 선고되어도 가해자의 종교 활동에 별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망신당하기 십상이어서 입을 닫고 있을 뿐 앞으로 미투 운동이 거세지면 그 어떤 집단보다 많은 사례가 들춰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제발이 저린 일부 인사는 자진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커밍아웃 해프닝도 벌어지는 지경인데 물론 자진 사과했다 해서 어물쩍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니어서 피해자 측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계에서는 이제는 미투를 넘어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위드유(With You)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피해자 모두의 연대를 통한 사회 변혁을 주창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의 페미니즘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도 전국 4,7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국가기관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다만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를 실명으로 특정했을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충돌하는 모순이 있어 이 조항의 폐지 여부가 향후 국회의 과제로 남고 있는데 국회 역시 보좌관들 사이에서 미투 동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맥군 후원 업체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영화통닭_ 후라이드치킨 테이크아웃 / 063-445-6274
무라야마_ 식사권 / 063-442-0488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홍차와 국화_ 커피 음료권 / 063-446-0616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최진선	최상식	박민서	하순옥	김남두
한선희	문성영	이승화	임수진	김민경
홍미진	장진희	김경은	조용준	박은지

앞선 생각으로 진보된 비즈니스를!

군산의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이미 아이씨엠과 함께 있습니다



C.I. (기업 아이덴티티) /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 Package (포장디자인)
Editorial (편집디자인) / Products (제품디자인) / Photograph (사진)

Add.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Tel. 063-445-1856 Fax. 063-911-1856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기업은행 (나운동) 063-467-6752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동군산병원 (경장동) 063-440-0300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울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우리문고 (중앙로) 063-445-0031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 호남공인중개사 (중앙로) 063-445-121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Vol. 84 | 2018.03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컬 럼 니 스 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 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 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은파호수

긴 겨울

어둠이 머물던 물빛다리

찬바람 사라지고

어느 덧

밤낮 길이가 같아진 계절은

산들바람으로 다가와

호숫가에 칠랑입니다.

개나리

이른 아침에

갯노란 봄을 꽃피웁니다.



일 잘하는 시의원 1위,
공약이행 도의원 대상
행동하는 정치인

최이정

전북도의원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리더십을 익힌 성장기

올해 만46세, 단란한 교육자 가정에서 출생한 최인정은 부설초등학교와 중앙중, 제일고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린이회장, 실장 등을 도맡다시피 하며 친화력과 리더십이 자연스레 몸에 배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웅변은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아주었으며 대학시절엔 연극 동아리에 들어 다양한 무대 경험으로 순발력과 기획력 등을, 그리고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에서의 27개월간의 군 생활은 강인한 심신을 배양했던 기간으로서 이것은 후일 정치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데 큰 자산으로 작용하게 된다.

꿈을 키워간 사회 초년병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그는 한국건설재료 시험연구소의 안전과장으로 입사,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의 연봉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건설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인맥을 다짐으로써 불과 1년 만에 100여개의 거래처를 500여개로 확장시킨 추진력을 보여준 그는 차장 승진과 함께 사우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명인안전진단이라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막상 시작한 사업은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역의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펼친 사회봉사활동에서 큰 보람을 느낌으로써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구현을 일생의 꿈으로 간직하게 되는데 주변의 권고에 힘입어 34세의 나이에 건설전문인으로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산시 최연소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다.

시의회 입성

첫 도전에서 350여 표 차로 고배를 마신 그는 자만심을 반성했고 아직 자신의 사회봉사가 미흡했던 것이라 여겼다. 이후 4년간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이자 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구를 다지기 시작한 그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봉사가 리더의 기본 소양임을 상기하고 청년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개발의 활동영역인 JC, 국제적 봉사단체인 로타리, 라이온스클럽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인맥을 쌓으며 봉사의 방법 등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업과 여러 가지 사회활





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며 열심히 뛰는 동안 자연스레 주민들과의 소통도 늘게 되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재도전 끝에 수송, 흥남 지역구에서 민주당 시의원으로 당선의 꿈을 이룬다.

시의원 초년병으로서 맞닥뜨린 의정활동은 평소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소소한 민원해결도 현행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 막히기 일쑤였고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 젖은 몇몇 행정담당자 때문에 애먼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의 개선도 문젠거리였다.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공리민복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체질변화를 끌어내

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예컨대 공동주택 거주율이 70%가 넘는 현실에서 시공부실과 하자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상위법을 핑계로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외면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자가 나서서 중재하고 벌칙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후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군산시가 재해에 대하여 해당 부서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점을 집중 지적하여 대민 비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겉치레 하드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민의 안전을 살피 매년 관련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도 했다.

일 잘하고 약속 잘 지키는 의원 선정

그로 인해 2011년, 공무원이 뽑은 일 잘하는 시의원 1위, 2012년,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최다 조례 발제자, 2013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2014년, 전라북도가 도의 미래인 군산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의 최전방에 서고 싶은 일념에 도의원에 도전, 당선되었다. 도의회 진출 후 교육위원회에 지원하여 부위원장직을 맡아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의 정책에 참여하고 사무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사실 도의원에게는 예산을 세우고 쓸 수 있는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없지만 해당 조례의 제, 개정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만들며 집행부와 소통하는 가운데 2천여억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중 군산시 교육을 위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정책제안에서의 5분 발언, 도지사와의 답판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도정질문,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긴급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 예산과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과 개정, 정부를 상대로 도의 현안 사항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 분야에서 6개 부문의 최우수기록을 달성하여 전북도의원 최초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시도의회 의정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던 군산시의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신설을 가장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라는 제도가 발목을 잡았고 그 가운데서도 군산초, 월명초, 동산중의 이전 신설을 결정하여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비정상적인 도시인구 분포로 과밀학급이 많은 도심과 작지만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의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 교육의 인프라를 넓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등 학교의 조정으로 도심의 학업에 지친 우리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가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했다. 이밖에도 월명초 이전 뒤 관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50미터 국제규격 수영장 신설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전용 레인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강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학교를 리모델링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 공간 확보 예산도 확보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흔히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을 진보 대 보수로 이분화 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현실과 견주어 볼 때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며 다만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는 진보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 반백년 동안 근, 현대 정치사가 나누어놓은 이념의 대립은 정치적, 지역적 대립으로 영호남을 갈라놓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으로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 분권을 시행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은 인구 유출 등으로 살아날 길이 막막해지리라는 건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 내에서의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 갈등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갈등의 책임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자각에 진보이면서도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 정당 간 네 편, 내편으로 갈라 묻지 마시 거수기 노릇만 하는 정

치는 양심과 체질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신을 의회로 보내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달라진 시야, 신념

의정 밖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의정 단상에 서면서 시야를 달리 하게 된 것은 비단 그만은 아닐 것이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그 민원 해결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려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며 월급을 받는다는 비난을 쏟기도 했지만 물론 변화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시민들의 꾸중을 듣는 부분도 있다하겠으나 행정절차나 예산 등이 법과 규정으로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속도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러다보니 때론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되고 솔직히 본의 아니게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듯하다.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해결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본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행정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민원사항과 해당 공무원 간의 중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은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여 자긍심을 복돋아 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때로는 저의 의정활동으로 상처를 받는 공무원이나 혹은 변경



수의정대상 시상식

19일(화)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4층 **주최** 전국시·도의회



된 규정으로 손해를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저의 소통 부족이라 생각하고 그분들께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다수를 위한 합리적 변화의 길은 계속 모색되어야한다는 신념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원의 본분과 역할

그에게 도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묻자 바로 대답이 돌아온다. 첫째로 도와 도교육청의 행정 및 공무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드는데, 해마다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 둘째, 위기관들에 대한 예산 심의와 삭감 기능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와 삭감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아무래도 출신지역을 챙기기 위해 밀당을 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로는 도민과 도 교육가족을 위한 입법 활동(조례제정 및 개정)으로서 이는 도민이 준수해야 될 규정 마련과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고, 넷째, 도민을 위한 대의 및 대변의 기능으로서 5분 발언, 도정 질문, 긴급현안질문, 결의문, 건의문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긴급한 사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문제해결 촉구, 지역의 힘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일의 경우 도의회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하거나 결의하여 올리는 의정활동 등을 든다.



지역의 현안 대처와 한계

의회는 여러 정파로 구성되다보니 정책의 이견으로 인한 대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사로운 이익 추구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방향을 조정한다. 지난번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최근 군산의 GM 철수설로 긴급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는 일찍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누구보다 앞장 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만 해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 건의문, 결의문 등을 채택하여 폐쇄 반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강력한 조치, 대안으로 풍력발전사업으로의 전환, 새만금 내부 개발을 통한 소형 어선 및 레저용 요트의 생산 등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군산시와 도 차원에서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대조선 측과 접촉에 나섰고 정부에 간곡한 목소리로 청원한바 있지만 사태가 비관적이어서 안타까움만 더해간다.

한국GM군산공장 문제만 해도 2017년 10월 산업은행과 맺은 비토권을 상실할 경우 구조조정에 나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GM의 철수 등을 미리 대비하고 군산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통하여 도의회 만장일치의 의결을 이끌어 낸 바도 있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 산업은행이 지난 15년 동안 실사 한번 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GM측에 경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기밀이라며 116건 중 달랑 6건만 제출했다는 것은 울분이 터지는 일이다. 철저히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등 투자기관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애꿎은 국민들만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뜩이나 군산경제가 초토화 지경인 와중에 롯데아울렛의 개점으로 막대한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 대규모 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2015.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2015.6), 롯데아울렛 입점 반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촉구 5분 발언(2015.11)등을 통해 입점을 막고자 최선을 다 했다. 하지만

아울렛은 예정대로 개점수순을 밟고 있고 그의 외침은 페이퍼코리아의 환경문제, 그리고 동군산 발전 명분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심지어 찬성 측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참으로 어이없고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해준다.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동군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그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지방분권의 허, 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개헌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다. 전북의 경우 도나 군산시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분권이 이뤄질 경우 열악한 재정난으로 복지과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와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이 될 것이고, 자립이 어려운 시, 군은 통폐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정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그러나 각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지방 살림은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차등 조정을 통하여 재정 형편이 좋은 타 시,도와 출발선을 맞춰줘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유통마트의 현지법인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형유통마트를 통해 연간 약 80조원의 지역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이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를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내 16개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1조2천억 정도로서 직원 7,400여 명 중 54%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현지법인화로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되면 정규직이 증가되고 매출금 등 지역자금이 현지 은행으로 순환되어 유동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의 농산품이나 공산품 등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광주광역시 신세계는 당초 현지법인으로 시작,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역경제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도 현지법인화 대형마트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군산의 경



우 지역 상공인의 아울렛 입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권의 약 50% 이상이 잠식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위에 언급한 예에서 보듯 군산 역시 현지법인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될 일이다. 그것만이 재정분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지법인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불매운동 동참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시작되면 우리가 바로 정부이며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군산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역할 모색

군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대표적인 바람은 무엇보다 일자리와 복지 증진일 것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기업의 일자리는 세계의 경기 흐름에 따라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이나 GM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사업 중단으로 하루아침에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대기업 의존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와 세계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탈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지 인간의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 관련 사업, 휴일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미래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은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원전 감축을 천명한 정부 정책에 맞춰 풍력, 태양광, 조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기업의 유치는 수출과 함께 내수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

들어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농업으로 특화 농수산품을 생산, 가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근대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경우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는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체험중심의 관광이 적기 때문인데 역사와 연계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 한 예로 군산초등학교 이전 뒤 폐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장을 설치한다면 교육관광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고 그로 인한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해망동 앞바다의 약 60만평에 달하는 인공 섬 금란도의 개발은 시내권의 관광에 커다란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자본, 민간자본과 군산시, 서천군, 전북도와 충남도가 함께 하는 '금란도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섬의 절반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나머지는 놀이공원, 펜션, 낚시, 캠핑, 영화의 거리 등을 테마로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에너지는 자체 소요량 이외는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내수면에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요트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3천 평 부지에 8조원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카지노가 들어와도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군산의 입장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지역민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법과 조례를 만들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세계잼버리대회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당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일자리는 많은 자주재원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보다 살기 좋은 군산, 떠나지는 군산이 아니라 모두가 찾아오는 군산으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최저임금의 빛과 그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사회적인 소통과 합의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크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주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적어도 이만큼은 지불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국내 노동환경은 7,530원이 최고 임금인 직업군도 많으며 산업경제의 전반적 현실을 볼 때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 반면에 그로인한 영세 자영업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가.

따라서 대기업이 소수의 고수익보다는 다수에게 함께 배분되는 사회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국가가 나서 적극 지원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환경에서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일본의 예에서 보듯 노동스트레스가 큰 기업의 일자리는 외면하고 두 건 이상의 아르바이트 등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는 자칫 인재 육성을 가로막아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손실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양질의 고용조건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이뤄지기도 전에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성장하는 기업은 힘들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대기업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동하는 정치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1녀1남의 자녀까지 3대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 석사, 군산대학교에서 토목공학박사를 수료하였지만 자신이 다루는 분야가 행정과 정책이어서 도의원 당선 후 곧



바로 고려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공공정책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그의 논문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지방분권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 중 그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는 임기 4년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한다.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정, 건의문, 결의문 채택 등 총 7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1위를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할 수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이 목소리를 높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회원 이래 최다 조례 제정 성과를 냈으며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전북의 문제점을 도의회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상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군산시를 위해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비롯하여 월명초, 군산초, 은파중 이전신설을 이끌어내었으며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초, 금광초, 미룡초, 산북중, 서흥중의 다목적강당 시설을 확정시키는 한편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및 보강공사에 연간 200여억 원의 예산편성에 앞장섰다. 학급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석면 제거 및 LED교체에 연간 300여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수업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일개 학교가 주는 도시의 경쟁력을 회현중학교의 사례가 보여주듯 자양중, 옥구중, 대성중, 임피중, 나포중을 기반으로 한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이끌어내 도심학교의 과밀을 해결하고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교육환경 조성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하는 것도 그의 소신에서다. 또한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수시 간담회를 갖고 소외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서 장애인과 어르신, 그리고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익힐 수 있도록 월명초 부지에 전용레인을 갖춘 국제규격의 50m 수영장과 청소년 자치 공간 확보 성과도 냈다.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 그는 국가의 서툰 유보통합으로 피해에 직면한 누리과정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위해 일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그는 고백한다. 열정이 너무 앞서다보니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깨끗한 정치, 사욕보다는 공익에 우선한 정치를 했다는 자부심만큼은 분명히 말 할 수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은 일거수일투족이 민생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항상 몸가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나 깨나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 말하는 그에게서 듬직한 신뢰가 엿보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의 의정활동을 익히 보아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최인정 도의원
군산시 미원로 101-1
T. 070-4383-8947

이야기가 있는 소설 탁류길 (2)

글 | 채명룡(특별기고)
cmr0118@naver.com

기다리는 건 간절해야 온다

누가 마도로스의 순정이라고 했는가. 여기는 멀리 떠나버린 어선들과 뱃사람의 험한 욕설도 다정한 밀어로 들리는 순백의 공허만이 남아 있다. 질경이처럼 뿌리를 내렸던 옛 동부어판장과 그 주변에는 가슴 아린 추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강 건너 장항 언덕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갈매기들, 짝 내 품은 바람에 얹혀 길게 유평하거나 파닥이며 흐르는 그들에게서 나는 자유를 본다. 날개의 안쪽은 파란 많은 세상과는 달리 늘 하얗게 반짝였고, 거기에서 마치 하얀 바람이 나오는 듯 했다.

혈렁하고 늘어지게 게으른 고물 바지선을 올라타자 문득 영화 '언더월드'가 생각났다. 이 배도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녹슬어 벌겋게 물든 바닥을 보면서 뭘지 모를 위압감을 느낀다. 조작조각 흩어진 삶의 파편들을 집고 때우려고 허벌라게 일한 뱃사람들의 한숨이 배어든 거라고 생각했다.

일제강점기의 소설가 채만식은 군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탁류'의 <인간기념물> 한 부분에 "철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 온 첫 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썸 세는 소리가 아니면, 댕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라고 썼다.



풍어제에 나온 간절한 여인네들의 기도 <군산시 제공>

오늘 나는 그 선창에 나와 손바닥이 하얗게 변하도록 일해 온 여인들을 떠올렸다. 그 갈라진 손바닥과 파여진 손등의 상처들에게서 간절했던 그날들을 본다.

하에서 더욱 슬픈 그녀들의 손바닥과 한숨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금암동과 중동 언저리의 지붕과 지붕을 멀리 바라보았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모여 새들의 유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찬바람에 언 손을 호호 불며 허드렛일로 몇 푼의 생활비라도 벌려했던 아낙들의 애잔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두 손을 모으면 무사귀환을 고대하던 아내의 예쁜 마음이었고, 손을 풀고 일터로 나가면 매서운 찬바람에도 끄떡없던 또순이 엄마들이었다. 아득한 선창에 나와 예쁜 아



붉게 녹물이 든 바지 선 안쪽의 모습



선창을 걷는 고은



녹슨 쇠밧줄 감는 기구 뒤로 금강하구둑이 보인다

내의 손을 비교하다니, 허허로운 웃음이 나온다.

기억은 이렇게 아픈 자리에 서면 더욱 생생해진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던 그 엄마들의 품을 이 선창에서 깊게 느낀다.

채만식은 소설 '탁류'의 <인간기념물>에 "항구라서 하룻밤 맺은 정을 데치고 간다는 마도로스의 정담이나, 정든 사람을 태우고 멀리 떠나는 배공무니에 물결만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온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프고도 달코로운 이야기는 못된다."고 썼다.

휘적휘적 돌아보자니 달코롭 하기는 커녕 약간은 기분 나쁜 시궁창 냄새도 나는 듯 하고, 냄새 맡는데 약한 내 코에도 갯냄새와 섞인 후줄근한 비린내가 썩 기분 좋지는 않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내키지 않으며 한발씩 내딛는 동안 이 후진 냄새에 동질감을 느끼다니.

오늘 이 쓸쓸함의 그늘에서 뱃사람과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내뿜었던 뜨거운 열기를 본다. 탈수룩 뜨거워지는

연탄불처럼 치열했던 그날의 삶은 오늘도 그렇다.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나는 누구에게 뜨거운 가슴이었던가' 생각해 보는 선창으로 가는 길이다. 이 빈 길을 걷다 보면 비록 색은 바랬지만 새벽을 열어갔던 험한 인생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갯가를 따라 발길을 잡는다. 햇별이 잘 드는 날이면 골목에는 비린내가 슬며시 달라붙는다. 누구랄 것도 없이 발랄했던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 둘 모아놓듯이 생선 몇 마리씩을 건조대에 걸어 놓았다. 그리워하면 속살을 내놓는 강물의 이치였을까. 사람들은 목이 말랐고 갈증을 풀듯 이 골목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고 있었다.

군산이 고향이 고은 시인 또한 가끔씩 이 선창을 거닐곤 했다. 서전에서 시집왔다는 어머니가 첫발을 내디딘 자리가 바로 이 선창이라는 것을 생각해 낸 것은 아닐까. 깊은 상념에 젖어 째보선창을 거닐던 때가 엇그제 같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를 보면 '주인공

초봉이의 아버지 정주사 또한 서전에서 논밭을 팔고 여기 째보선창에 내려 군산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줄거리가 전개되고 있다.

참 묘한 일이다. 군산을 대표하는 시인과 해방되던 해에 먼 길 떠난 소설가의 집안 이야기가 겹쳐지니 말이다. 서로 알고 지냈을 터이 없는데도 시대상을 달리해서 이 선창의 인연을 공유하고 있다니.

사람이 그리운 게 요즘의 이 곳이다. 고은이 추억에 잠겼듯, 탁류의 정주사가 소설 속 이야기 안에서 고단한 삶의 짐을 내리듯 하나씩 둘러본다.

그리웠던 이를 하나씩 불러보던 그날. 이 선창의 노을은 세상을 향해 더욱 붉게 타올랐다. 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한쪽 가슴이 되기 위해 스스로 불꽃이 되거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웠던 날을 하나씩 그물에서 건져 손바닥에 올려놓고 생선 뒤집듯 꼼꼼 살피본다. 나는 어설픈 시멘트 바닥 위에 '기다리는 건 간절해야 온다'라고 쓴다.



개항 이전 군산 꾀보선창 부근의 모습 <동국사 종결스님 제공>

언청이, 꾀보 그리고 선창

일제강점기의 혼란한 상황을 초봉이라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역설적으로 풀어낸 백령 채만식의 소설 '탁류'.

일제에 협력한 친일작가로 오르내리는 그는 혼란기를 살다간 논란 속의 작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민족의 죄인'이라는 작품으로 잘못을 구했다.

하나님 앞에서면 누군들 죄인이 아닐까. 나는 오늘 꾀보선창이 시작되는 삼각형 주차장 앞에 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언뜻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났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던 그는 28세의 나이에 일찍 갔다.

'탁류'의 첫 장을 열면 "지도를 펴 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에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꾀져가지고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만 1900년대 초 지도를 살펴보면 이 선창 부근이 '획'하고 휘어져 들어갔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쭉 들어간 지형을 두고 '꾀보'라고 이름 지었으니, 옛날 사람들 지명 하나는 참 기막히게 만들어냈다.

그 길을 오늘에 걷는 건 납작하게 엎드려 사는 사람들의 삶의 뒤 안을 바라보는 일이다. 군산의 중동과 금암동 일대를 지나 둔뱀이로 향했던 일제 강점기, 초봉이의 간절했던 날들을 오늘에 새겨본다.

입술이 찢진 이들을 놀리는 말로 '언청이'라고 불렀다. 어쩌다 한번쯤 눈에 띄었고, 보여야만 보는 게 다였지만 오늘에 그 사람의 슬픔과 마음 속 갈증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다.

언청이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는가. 아이 입술이 갈라져 나온 게 마치 자신의 업보이자 죄인 양 치마폭에 감싸 안아 키우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1980년대까지 온갖 걱정과 시름을 감싸안아 주었던 선창, 긴 세월 잠을 잤던 이 곳이 다시 깨어난다고 한다.

요즘은 이런 장애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예전엔 입술 위쪽이 갈라진 상태로 질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또래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다. 약동 아이들에게 엄마는 방패였고, 엄마는 유일한 피난처였으며, 삶을 달리할 때까지 언제나 구세주였다.

발을 돌려 선창쪽을 보고 섰다. 왼쪽의 건물들은 '화려했던 그날들이여' 하고 품을 내는 듯했지만 이층 언저리에 궁기가 가득 들어찬 피곤한 모습이다. 오른쪽은 더 절박하다. 예전 1990년대 까지 번창했던 금강수산 냉동공장이 있던 건물이다. 멀쩡하게 하얀 건물이 그대로이지만 수산업이 멀리 길 떠난 마당에 속앓이가 어제 오늘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꾀보선창, 그리고 선창 가는 길. 그 이름과 기억, 그리고 아련한 추억으로 떠도는 그 포구는 없어지고 물때마다 돌아오는 잿빛 빨과 텃새로 남은 몇몇의 갈매기들이 낮고 쓸쓸하다.

생선경매를 부르던 왁자지껄한 소리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어부들의 아귀다툼도 이젠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사연 많은 사람들과 시간들은 간 곳 없고 허연 배를 드러낸 포구에 남겨진 폐선 몇이서 아스라한 그 때를 회상하고 있다.

나는 오늘, 떠나지 못한 갈매기로 남는다. 그리고 탁류와 함께 남겨진 강기슭을 굽어본다.



복개되어 주차장에 세운 꾀보선창의 표지석



골목마다 벌이 들면 생선 건조대에 생선이 말려진다

흔들흔들 '탁류'와 함께 걸어 가는 길

일자로 난 선창의 길은 외롭다. 사람 냄새가 짙긴 이 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물이 빠지면 마치 어느 노숙자의 헤진 외투처럼 허접하고 눈 둘 데가 없지만, 낡아서 눈길이 가고 눈길을 좇아 가다보면 어느새 아련해지는 선창 길이다.

아련함은 애절함의 다른 말이다. 걸레처럼 헤진 속곳을 보여주는 선창이지만 애절함을 넘어 서서 간절했던 오늘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고개를 떨군 어선들과 그들을 결박해 놓은 역센 밧줄과 심난한 표정의 회벽 건물들을 휘휘 둘러본다. 이 강가에서 펄떡펄떡 뛰던 물고기들과 역센 사나이들의 손짓과 아줌마들의 가쁜 숨소리가 익어갔을 것이라.

바람따라 외로움이 떠밀려 온다. 외로울 땐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흔들흔들 걷는다. 후진 뒷길이나 선창, 포구, 갯가를 걸을 땐 혼자도 좋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돌이라면 더 좋다. 앞서거나 뒤 따르면서



깨보선창, 예전 동부 어판장 선창 길에 위태로운 포장마차

허름한 세월의 흔적들을 기웃거리려 보는 일도 좋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인간기념물> 한 부분에는 선창의 풍경에 대해 “날이 한가한 것과는 딴판으로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웅크뚫고 떠받고 물이 안 보이게 선창가로 뻗뻗이 밀려 들었다.”라고 했다.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끝을 뒤쫓아 밟으면서 회색 빛으로 늘어진 금강하구를 따라간다. 하구의 안쪽, 생선이나 조개류를 다루어 씻어내는 오막살이 포장마차가 난간에 위태롭다.

이 난간에 기대 어패류들을 다뤄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어머니들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과 험클어진 머리칼을 생각한다. 빨 속에서 건져 올린 온갖 조개류와 앞 바다에서 잡아 온 몇 상자의 잡어들이 요즘 일거리로 남았다.

이 포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함지박과 물통, 몇 가지의 플라스틱 작업용기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일거리가 있건 없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생선 다루는 작업장의 불문율이다. 그렇잖아도 비린내와 깨끗하



포장마차 안의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



어패류를 다뤄주는 작업 현장



수산물을 다뤄주는 경원수산 사거리

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생선인데 그걸 다루는 일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들이 허술히 할 리가 없다.

두 어 썰 남짓한 작업장 안에 들어서서 생선과 조개류의 살을 바르고 바닷물로 헹구어 내면서 내장과 비늘을 정리해주던 아줌마들의 날렵한 손놀림을 상상한다.

사립문 열듯 살며시 밖으로 나온다. 문 밖은 하오의 바람이 무리로 일어서고 있다. 쭉 내려간 난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설픔게 난 계단이 뿔발까지 이어졌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가 밀려든 빨에 손을 얹어 본다. 시름한 냄새가 밀려오지만 싫은 정도는 아니다.

굵기가 엄청난 밧줄과 밧줄로 칭칭 동여맨 채 수리를 위해 기다리는 낡은 어선들과 몇 척의 바지선들이 그나마 다정한 표정이다. 힘이 빠진 배들의 그 심심한 안색을 살펴가며 선창에 널린 삶의 흔적들을 건져 올려본다.

몇 걸음 더 가본다. 조개와 해산, 그리고 갖가지 수산물을 가공해준다는 안내판과 수협 비응도 공판장 중매인이 운영한다는 간판도 눈에 띈다. 이래 허접한 간판인데 장사는 얼마나 될까.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꽃게가 알을 품었듯이 그 속은 알차기가 그만이라는 사실을 곧이어 발견했다.

허술한 간판, 허접한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자 딴 세상이 펼쳐졌다. 들어가 보니 우선 길게 쪽쪽 이어진 작업장에 건조장, 수족관, 세척장과 일하는 아줌마들이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선창의 하루는 낡은 것을 눈으로 좇거나 그 안에 동화되는 일이다. 오늘 한가롭게 주변을 맴도는 몇 마리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주변에 의해 변해가는 구나” 생각한다. 어설픔서 애정이 가는 긴 시간의 흔적들이 이렇게 아슴아슴 새겨지고 있었다.



조선소에 속고
지엠에 배신당하고,

군산 시민 망연자실

[르포]
‘지엠 쓰나미’...
대량 실직과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비상’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한국지엠(지엠 군산공장 정문. 사진출처 김중신 페이스북)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군산의 재래시장 민심을 취재한 적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핵 정국), 김영란법, 조류인플루엔자(AI),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였다. 놀라운 점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보다 탄핵 정국을 불경기 원인으로 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얼마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고, 5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군산 시민은 대선 후보 시절 군산조선소 존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이후 1인 릴레이 시위,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쫓기대회, 인간 띠 잇기,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7월을 넘기지 못하고 조선소가 폐쇄됐다.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3일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나온 것. 군산은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대량 실직 사태, 인구 감소로 나타나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직장폐쇄 소식. 군산 시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엠 군산공장은 생산량의 약 80%에 이르는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던 자동차 회사였다. 그러나 2013년 수출길이 막히면서 위기론이 불거졌다. 이후 지엠 본사의 경영 전략에 따라 군산 공장이 신차 생산에서 제외되고 2015년 초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야 했다. 그해 7월에는 하청업체 구조조정으로 5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엠 군산공장은 호황일 때 지역 총수출 물량의 50%를 담당했다. 꼭 호황기가 아니더라도, 한때 지역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고 수출량의 20%를 담당했다. ‘공단 부근 주민은 지엠 덕에 먹고 산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직

원들의 소비 금액이 1년에 1400여 억 원으로 군산시 1년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했던 것. 그러나 작년 자동차 생산은 3만 대에 그쳤으며, 최근 3년 동안 가동률은 20%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 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군산 인구는 전년 대비 847명 감소한 27만7551명이었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2017년 12월 인구 통계는 더욱 참혹하다. 27만4997명으로 1년 사이에 2554명이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중소면(面) 단위에 해당하는 인구여서 충격을 더한다. 올해 들어서도 한 달 사이에 200명 이상이 군산을 떠났다. 이대로 간다면 12월이나 내년 초에 27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군산 인구는 2006년 최저점인 26만 명 남짓을 기록한 이후 매년 2500~5000명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28만에 육박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는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산업단지 공장들의 가동률 저하 및 폐쇄가 고용감소로 이어져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에 일어난 큰 폭의 인구 감소는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잘 나타난다. 군산 미원동

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고상규(50대)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82.6㎡(25평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 1천만 원을 호가했으나 2년 전부터 8천 5백~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 거래가 끊긴 상태”라고 전한다.

현수막 문구에서 읽히는 시민의 분노와 배신감

한국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쓰나미’는 지역 경제를 쑥쑥 얼어붙게 했다. 부동산, 음식점, 생필품 등 모든 거래가 평년의 50~60%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민심도 흉흉해졌다. 설 연휴를 보내고 만난 이웃에게 안부 인사조차 건네기가 민망할 정도다. 2000년대 초 ‘대우자동차 살리기’에 이어 몇 년 전 ‘GM 살리기’에 앞장섰던 시민들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푸념하면서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다.

기자는 지엠 사태를 대하는 지역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일과 23일 이발소, 부동산중개소, 전자부품 가게,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 봤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도 30여 개 살피었다. 지엠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원이나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군산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군산시 나포면에 내걸린 현수막



피켓시위에 나선 시민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우리 가족 생명의 터, 한국GM 군산공장을 지켜내자!’

‘군산 시민은 분노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웬말이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한국 GM의 철학인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도 폐쇄결정! 군산 시민은 죽으란 말이냐!’

‘군산 시민 피눈물 난다. 피눈물로 지켜온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철회하라!’

‘정부의 한국GM 정상화 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 재가동을 전제로 하라!’

군산 시청을 비롯해 지역의 각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정당,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내건 수백 개 현수막 중 눈에 띄는 문구들이다. 그 외에도 ‘신규 물량 배당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군산 경제 초토화 된다’고 불황을 우려하는 구호도 있으며, ‘군산 시민 죽어 가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고 현 정부를 힐난하는 문구도 보인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 군산 시민의 소망과 분노, 배신감, 절박함 등이 동시에 묻어난다.

의견은 갈리지만... ‘너무 힘들다’엔 한 목소리

현수막은 군산의 동쪽 끝 마을인 나포면 입구에도 내걸렸다. 마을 이발소 주인 박성주(50대) 씨는 “손님 중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을 향토기업으로 인식하면서 군산이 살고 전라북도가 살려면 지엠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엠 공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입주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반응이 다양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발소에서 만난 손님은 “지엠은 먹튀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에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니 포기하고 매각이나 다른 기업 유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영동 공설시장에서 3대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진아(50대) 씨는 “상인 모두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시끄러웠던 1년 전보다 더 힘들어한다”며 재래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강 씨는 “우리 가게도 외항 공업단지 쪽에서 주말이면 족발과 국수를 가족 단위로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 열 팀 넘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관광 시즌인 설 연휴 매상도 예년의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재래시장, 자영업자... 모두 ‘취청’

“군산 산업단지와 가까운 산북동, 소룡동의 음식점이나 노래방으로 출장 다녀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큰일이네요. 요(한숨)”

대명동에서 40년째 전기 전자 부속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수(60대) 씨의 하소연이다. 지엠 군산공장이 2교대, 3교대로 잘 돌아갈 때는 노래방이나 음식점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러 다녔으나 작년부터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어 박씨는 “거리에는 지엠 공장 철수 반대라고 쓴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지만,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떠날 기업도 아니니 버려두고 새로운 입주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래시장 돼지국밥집에서 만난 한 손님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야지 ‘반미’를 이유로 색깔론을 들먹이거나 현수막이나 내걸고 일인 시위 피켓 들고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역 정치인들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북 군산시 의원은 SNS를 통해 “나운2동 통장 회의에 참석했다가 된통 혼났다”고 고백했다. “이런저런 지역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서명이나 받아야 하고, 이런 일 왜 통장들을 동원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 ‘무너지는 지역 경제의 절박한 심



전자부품 가게 주인 박현수씨



정에 30만 시민 서명이든 집단 상경 투쟁이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통장들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허사였다는 것이다.

이복 시의원은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지역 경제가 몰락하는 과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1인 시위와 시민 쉼기대회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신 전 군산 시의원은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하지만, 시민과 한국 지엠 가족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예측된 사태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촛불 정국, 정권교체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방관하다가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고 어떤 방법이든지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닫는 군산공장, 심폐소생술 할 수 있을까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지역 몰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0여 년을 같이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지엠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 결정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문 시장은 “지엠사보다 더 속을 상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지엠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환영의 목소리)에 군산 미 공군기지와 함께했던 그간의 동맹 관계가 이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국 지엠 본사는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24일 군산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묘안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엠 군산공장의 정상가동이 최선이지만 그 또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매각이든, 조건부 지원이든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 아닐까.

위 기사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신한복 입고 떠나는

군산 쓰리 ✨ 테마여행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원!

투!

쓰리!

쓰-리 테마여행 무비 투어 / 문학 투어 / 역사 투어 중 **택1**
문의) 010-6742-2340 / 살롱드모던 **P** 플러스친구

- 1박 숙박 ● 2식 식사 2인 ₩250,000
- 입장료 및 한복체험 ● 애프터눈 티파티 20인 단체 ₩2,000,000

취향따라 골라서 즐기자! 군산 쓰-리 테마여행



웬! 무비투어

8월의 크리스마스, 타짜, 군도까지
명장면 속 군산에서 오늘은 나도 무비스타!

투! 문학투어

군산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 소설 「탁류」
주인공 초봉이와 탁류길을 걸어요!



쓰리! 역사투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 개항도시 군산에서 배우는 역사

오늘은 나도 무비스타! 군산 무비 투어

1일차 2일차

- | | |
|--------------------|---------------|
| ● 14:00 동국사 | ● 10:00 차림문화원 |
| ● 벽화마을 & 초원 사진관 | ● 진포 해양공원 |
| ● 신흥동 일본식 가옥 (히로쓰) | ● 부잔교 |
| ● 군산 제3청사 & 해망굴 | ● 빈해원 점심식사 |
| ● 애프터눈 티파티 | |

초봉이와 탁류길을 걸어요~ 군산 문학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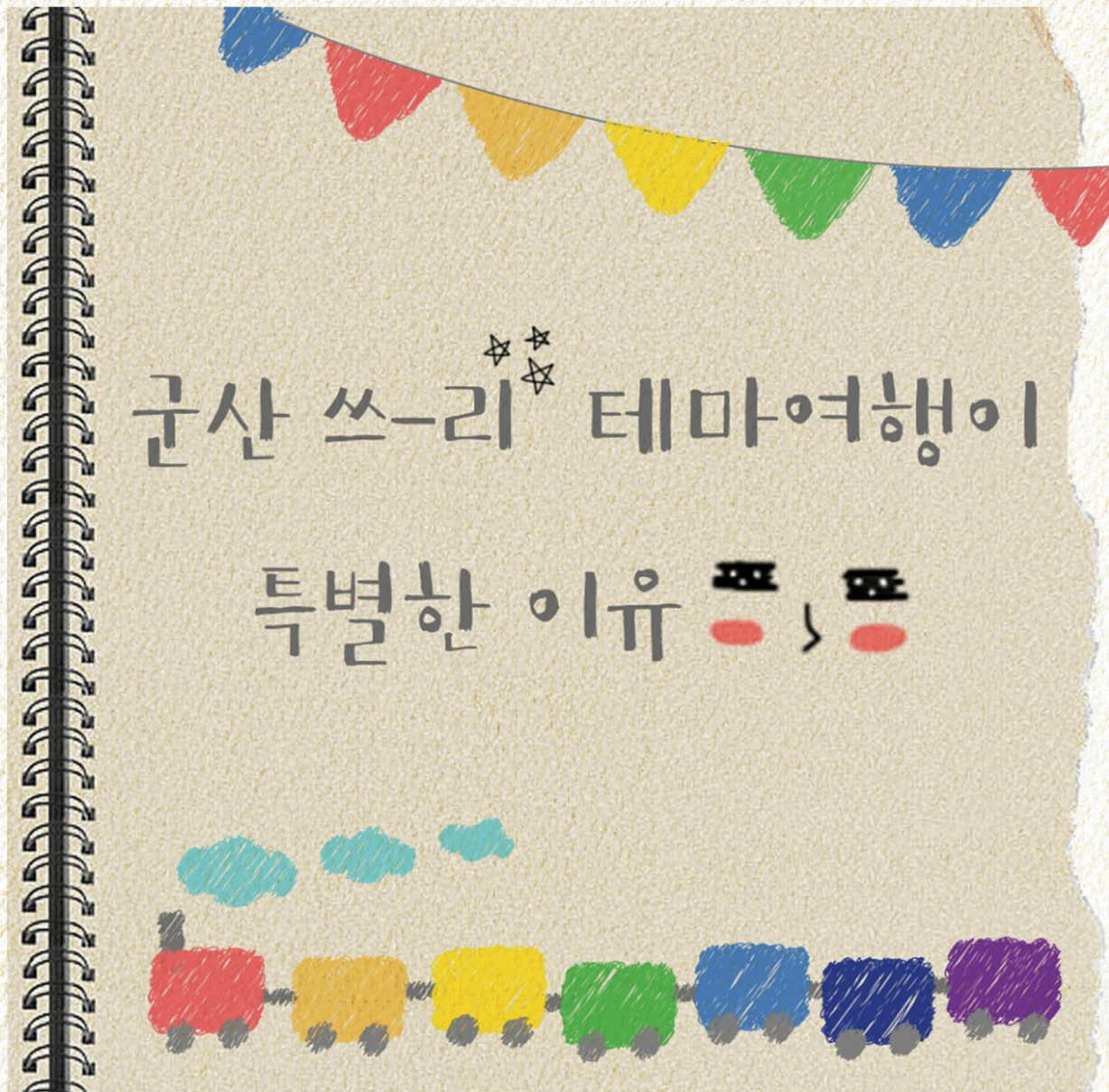
1일차 2일차

- | | |
|---------------------|-------------|
| ● 14:00 군산 역사 박물관 | ● 10:00 동국사 |
| ● 진포해양공원 & 부잔교 | ● 채만식 문학관 |
| ● 개북동 예술인의 거리 & 문학비 | |
| ● 선양동 해돋이 공원 | |
| ● 애프터눈 티파티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군산 역사 투어

1일차 2일차

- | | |
|--------------------|------------------|
| ● 14:00 해망굴 | ● 10:00 근대역사 박물관 |
| ● 군산 부윤관사 외 | ● 호남관세 박물관 |
| ● 신흥동 일본식 가옥 (히로쓰) | ● 근대 건축관 |
| ● 동국사 | ● 근대 미술관 |
| ● 애프터눈 티파티 | ● 뜬다리 & 진포해양공원 |



군산 쓰-리 테마여행이 특별한 이유



투! 애프터눈 티파티

품격있고 우아한 애프터눈 티파티를
신한복을 입고 즐겨보자구!

#차한잔의여유 #인스타갬성 #인생샷

군산 쓰-리 테마여행이 특별한 이유



쓰리! 예쁜 게스트하우스

냄새나고 촌스러운 민박집? 아니죠
국내여행 대세는 훈훈한 게스트하우스!

#조식맛있는게하 #게하파티 #썸타고싶니 #여행은사랑

W.C.P
컴퓨터

문지오

글매거진군산편집부



Platz

이준원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 전세계 1위 이다.(2017년 미국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이는 전세계 보급률 15.4%에 4배에 해당된다. 보급률을 넘어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공개한 ‘2017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속에서 중복선택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카카오톡(50.4%)과 페이스북(42%), 유튜브(31.8%)로 나타났다.

그로인해 최근 직업시장엔 플랫폼 속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물론, 개인방송 ‘BJ’등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였고, 위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제품을 소비시장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홍보 판매하는 ‘미디어 커머스’까지 등장하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이어나가는 중이다. ‘미디어 커머스’를 이용한 수많은 기업들의 등장 속 전라북도에서도 ‘미디어 커머스’ 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며, ‘전라북도’라는 거대한 플랫폼 속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콘텐츠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뛰어든 두 청년이 있다.

2012년 전라북도 익산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언론학부’에서 처음 만나 여느 대학생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미래를 꿈꾸던 두 청년이 정확하게 사업을 이야기 했던 건 2015년 여름이었다.

플라츠 이준원 (이하 이) : 항상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해 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소소하게 스펙과 용돈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콘텐츠 공모전을 많이 참가하면서 학업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채널사에 입사를 하면서 영상 제작을 직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사업을 시작 할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러다 해외로 나가볼 기화가 생겼고,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다 대학부터 항상 같이 지내던 옆에 있는 이 친구와 대화를 통해 ‘해외에 있는 걸 왜 우리가 못해?’, ‘자리 잡은 회사가 없을 뿐 이지 전라북도 청년들이 왜 이일을 못해?’ 라는 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W.C.P컴퍼니 문지오 (이하 문) :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꼭 해보고 싶던 음악이 있었어요. ‘민중가요’를 노래하고 싶어 동아리에 들어가서 형을 처음 만나게 됐죠. 뜻이 같다 보니 이야기도 통하게 되었고, 둘 다 공통점들이 많아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개인 사업과 회사 생활을 경험하면서 현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 했죠. 각자 나름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보는 생각을 공유하다보니 공통된 점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우리의 삶을 권선으로
전라북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

두 사람은 사업에 도전하기에 앞서 2017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참가자들 중 우수한 아이디어와 경쟁하는 ‘광역 심사’ 까지 진출해 현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에 선발되어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다.

문 : 뉴스나 여러 매체 속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군산지역의 고용위기나, 지역사회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제작 사업이 아닌 시대에 흐름에 맞는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찾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커머스’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제품입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여, 콘텐츠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역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더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전라북도는 콘텐츠 산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를 콘텐츠를 통해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참가를 통해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1000억? 숫자로 나타낼 이익을 넘어
전라북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꿈꾼다.”

대부분의 사업 초창기에 사업주들은 매출액과 순수익의 증가율을 이야기 하지만, 이 두 청년 들은 숫자로 판단 할 수 있는 목표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 : 젊은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 는 우선 얼마나 생존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금방 식어버리지 않기 위해 저희들의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다양한 기업체를 만나기 위해 SBS CNBC 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윤창출 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기업들의 생존역시 함께 하기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 : 100억? 1000억? 이라는 액수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 '군산, 전라북도 하면 플라츠와 W.P.C.컴퍼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기업의 뛰어난 제품을 발견하고 재개발하여, 지역기업과 공동 성장을 하고 나아가 지역 청년이 출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하나 둘 씩 달성해 나간다면 저희가 꿈꾸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과 자신을 꿈을 쫓는 배우지망생 과 함께 드라마_플라츠 라는 이름아래 웹드라마 콘텐츠도 제작 중에 있으니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부탁 드립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2018년 트렌드 속에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두 청년의 3월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했다. 춥고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3월처럼 상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 그림의
원천은
자유로움입니다”

팝 아티스트 박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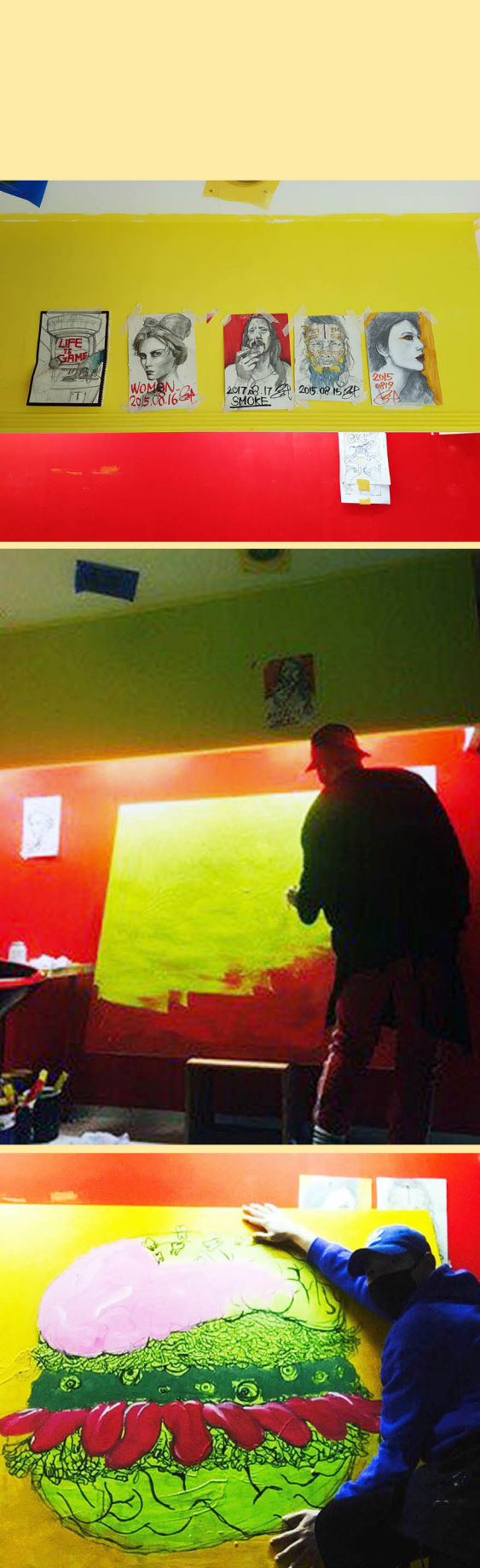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필자는 그를 팝 아티스트라 소개했지만 그가 동의 할지는 모르겠다. 작가라는 칭호가 맘에 안 든다며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불러 달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 넘치는 그의 그림들은 어딘지 세계적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의 화풍과 닮아있다. 팝아트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한 미술의 한 장르로서 정통 미술에 식상한 화가들이 도시의 정보 문화가 만드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일상생활 속 모든 사물을 작가의 개성으로 또 다르게 구현해내는 예술이라 할 수 있는데 표현이 간결하고 자유분방하며 원색을 사용하는 특징으로 최근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태준(31). 그가 군산중앙초, 영광중, 중앙고를 다닐 때만해도 전교 30등 이내에 들 정도로 특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 중 미술 전공자가 많아보니 자연스레 그 역시 미술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친척 중에 미국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누나의 적극 권유도 있어 엄마와 담임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미술로 방향을 전환, 이천 소재 청강문화산업대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게 된다. 그가 미술과 급속히 친해진 또 다른 요인은 어린 시절 부친 별세 뒤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그림에 몰두한 버릇도 크게 굳어졌기 때문인데 결국 엄마도 자식의 뜻을 이해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며 적극 지원해 주기에 이른다.





대학 졸업 후 그의 첫 직장은 광고회사. 입사 전 아르바이트로 인디밴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껴 광고 공모전을 통해 광고회사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기획실 재직 중엔 조감독 직을 맡아 지난 2015년도 대한민국 광고대상 온라인부문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입증받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광고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흐뭇했고 보람도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하는 일이 광고 속의 주인공을 어필할 뿐 정작 광고를 만드는 자신의 존재감에 회의가 들면서 극심한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일에 의미를 찾고 싶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광고 촬영 작업을 하는 동안 영어에 애로를 느껴 자존심을 상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는 광고회사를 그만 두고 약 2년에 걸친 세계 일주를 결심했다. 그는 일단 친척이 거주하는 호주로 갔다. 영어부터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친척집에서 기거하며 어학원에 등록, 현지 대학에 진학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어학원의 배려로 수강생들에게 미술을 강의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미술 강사로서 그의 인기는 현지 지역신문에도 실릴 정도였다. 그러나 영어시험 통과 후 긴장이 풀려선지 갑작스레 우울증세가 찾아왔다. 의사는 공황장애라 했다. 가끔 공원에 나가 초상화를 비롯해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지만 극심한 인종차별에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았다.



그가 귀국한 것은 작년 7월. 두어 달을 쉬면서 지쳐있던 심신을 달랜 뒤 영동에 작업실을 구했다. 머릿속에 차오르는 영적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였다. 그는 밤낮으로 그림에 몰두했다. 자신이 인식한 사물의 이미지들을 거침없이 화폭에 구현하고 싶었다. 원색 계열의 그 그림들에는 강렬한 청춘의 파워와 개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최근 특히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팝아트는 순수미술의 고정관념에 젖은 기성세대에게는 어딘지 사이코틱하고 징그럽다는 반응을 주는 게 사실이고 그의 가족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그렇다 해서 그의 개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했고 젊은 날의 특권이기도 했다. 적어도 그림에 몰두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은 그의 것이었다.



시민예술촌 전시

그렇게 표현된 그의 그림들은 지난 1월 중순 개북동 소재 시민예술촌에 전시되고 있다. 주변 미술인의 추천을 예술촌 측에서 흔쾌히 수용한 것이다. 그는 이번 전시회의 제목을 '진화'(Evolution)라 붙였다. 그림 속 다양한 풍자적 표정들은 어쩌면 그의 자화상일수도, 모순과 고뇌에 찌든 현대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번의 첫 전시회는 금년 내 큰 규모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 오랫동안 군산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군산은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결 여유로움과 포근함을 주었다. 그는 앞으로도 고향인 이곳에서 취미인 바이올린을 비롯한 자신의 소질을 즐기며 정착할 생각이다. 또한 용접을 배우고 싶어 조만간 학원에 나갈 계획이다. 바이올린과 용접이 그의 작품 세계에 또 어떤 영감을 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경험은 그만큼이나 작가의 내면세계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경용천부 유적지 입구임을 알리는 솟을대문

찬란했던 ‘발해 역사’ 중국인들 손에 뜯기고 할퀴고!

겨울 만주기행을 다녀와서

글 | 조종안(시인기자)
chongani@hanmail.net

항일유적과 함께 하는 겨울 만주기행 넷째 날은 아침 일찍 묵단강시(牡丹江市) 강변을 둘러보고 ‘발해’(渤海: 서기 698년~926년) 유적지가 있는 영안시 ‘발해진(동경성)’으로 이동했다. 소요시간은 한 시간 남짓. 이날도 불펜으로 글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웠다. 그러나 드넓게 펼쳐지는 비옥한 농토는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눈으로 덮여 하얀 용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광활한 벌판은 만주에 와 있음을 실감 나게 하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솟을대문 붉은 판에 한자로 ‘발해’라고 쓰인 표지판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순간, 흥미 있게 시청했던 대하드라마 <대조영>의 ‘동모산 전투’ 장면이 그려지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가사 첫머리를 콧노래로 읊조렸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임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참 흥얼거리는데 안내자 설명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대조영이 발해국 수도로 정했던 발해진(상경용천부)을 동경성(東京城)이라 부르게 된 연유는 1934년 일제가 ‘도영 철도’(도문-영안)를 부설하면서 지어 부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고 했기 때문. 왜 하필 ‘동경성’일까? 의아스러웠는데, 일제의 간악무도함이 또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웃기지도 않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중국 지도에도 ‘동경성’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주’라는 단어조차 싫어하는 중국이 일제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니, 대고구려를 지방 정권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이중성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역사는 그 나라 민족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며 민족의 자긍심과 힘의 원천이다. 해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광대했던 고구려와 발해 영토를 보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낀다. 이는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민족이며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라.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버스는 한국의 농촌 분위기가 풍기는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쪽 뻗은 도로는 한적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앙상한 겨울 임에도 가로수들이 어깨동무하고 하늘을 뒤덮고 있어 쓸쓸함을 덜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만큼 넓은 벌판이 좌우로 펼쳐졌다. 한참을 달려도 같은 모습의 설경이 눈을 부시게 했다. 과연 만주 벌판답다는 생각과 함께 드라마에서 봤던 대조영처럼 말을 타고 실컷 달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상경용전부 유적지 가는 길

할퀴고 뜯기고 왜곡된 발해 유적지

설경을 감상하는 사이에 발해 상경용전부 유적지에 도착했다. 성벽 주변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고, 문도 잠겨 있었다. 안전가이드가 내려가 문을 두드리니까 중국인 감시원이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었고,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궁궐터 입구 왼편에 세워진 말고삐를 매었던 것으로 보이는 검은 돌기둥과 발해 상경부용전부 유적지를 알리는 성벽 앞의 표지석, 우물터를 알리는 붉은색 한자 ‘水井’이 음각된 돌비석 등이 ‘발해’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되살려냈다. 궁궐터 앞에 세워놓은 사각 표지석 중앙에는 ‘발해국상경용전부유지’(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안내자가 설명하는 뒤편 안내문 내용은 그와 정반대였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중국어 교수에게 확인했어요. 요약하면 ‘발해는 중국 당나라 시기의 지방 정권으로 송말 말갈족이 주축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북공정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앞에는 ‘발해국’을 새겨놓고, 뒤에는 ‘말갈족’을 넣었습니다. 만주를 다녀보면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뜯어고쳐 놓았어요.”

앞면 안내문을 따르다면 지배층은 당연히 발해 백성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물론 나라를 건국한 ‘대조영’도 들어 있어야 앞뒤가 맞는다. 그런데 눈을 찡고 찾아봐도 없었다. 중국은 어설픈 손가락으로 우리의 역사를 할퀴고 뜯어내며 왜곡하고 있었다. 발해 역사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감춘 안내문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가 얼마나 뒤틀리고 망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늘은 다 알고 있는데,

사라진 궁궐터, 흔적이나마 남아 있어 다행

무거워진 발걸음을 발해국 궁궐터로 돌렸다. 성벽은 모두 허물어지고 유일하게 남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이 소복하게 쌓인 궁터는 반듯하게 나누어진 건축형태만 보존되고 있을 뿐이어서 옛 ‘해동성국’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건너편 궁궐터 성벽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거대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안내인은 남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마지막 궁궐터까지 거리가 600m 정도 된다고 설명해주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남문에서 제1 궁궐터까지 200m, 1궁에서 2궁까지 150m, 2궁에서 3궁까지 130m, 3궁에서 4궁까지 30m, 4궁에서 5궁까지 90m로 합해서 600m가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궁궐이었다는 답이 나오지요”

최근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성벽 돌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었다. 다섯 차례의 화산분출로 암장이 냉각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경박호’가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국 상경용전부 부근은 화산지대였던 모양이었다. 남문 성벽에 오르니 눈이 쌓여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윤곽은 드러나 있었다. 어른 걸음으로 다섯 발 거리마다 기둥을 받치고 있던 받침석 다섯 개 정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1500년 전에 쌓은 성이 그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경 용전부 궁궐 내 우물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발해 궁궐터 남문 통로



수도였음을 알리는 '상경 용천부' 표시석

비록 터만 남았지만, 대륙을 호령했던 선조들의 기상이 넘쳐났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들어마시니 만주의 찬바람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학생들은 눈 쌓인 궁궐터가 운동장처럼 넓다며 탄성을 터뜨렸다.

감시원은 제2궁궐터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중국은 발해 궁궐터도 자기를 입맛대로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모양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발해의 왕궁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작으나마 남은 문화 유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느냐가 더 중요할 터인데, 우리가 드라마 <대조영>을 시청하며 즐기는 사이에 중국은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이 일기도 했다.



앞에서 바라본 발해 상경 용천부 제1 궁궐터 성벽



영안시 주변 마을 풍경

관광지 사진촬영 금지는 모순이요, 어리석은 짓

감시원은 출입제한에 이어 사진촬영도 막았다. 어쩌다 눈에 보이면 고함을 지르며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입장료(20위안)에 허름한 화장실 사용료도 1위안(180원)씩 받으면서 사진촬영을 못 하게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중국은 보수하고 있는 성벽과 발굴해서 진열해놓은 발해 역사 유물에 대해 떼뻗하다면 홍보차원에서라도 방문객들에게 사진촬영을 권해야 한다. 그런데 관광지로 개발해놓고 사진촬영을 못 하게 하다니 모순이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일유적지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항일투쟁 흔적을 어떻게든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눈과 귀를 통해 느끼면서 작은 분노가 치솟았었다. 그런데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의 체취를 느끼러 왔다가 왜곡해놓은 걸 보니 탄식이 절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40분, 점심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메뉴는 조선족 식당에서 얼큰한 육개장을 먹을 거라고 했다. 기분이야 어쨌든 침이 꿀꺽 넘어갔다.

심폐소생? 유기치사? 기로에 선 '시민문화회관'

군산예총 황대욱 지회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시민문화회관

30여 년 전인 1989년, 군산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나운동 소재 시민문화회관. 2013년 예술의전당 개관과 함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 건물의 존폐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방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예총 군산지회에서 시민문화회관을 본래의 기능대로 되살리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예총 황대욱 지회장과 조성돈 고문(직전 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황대욱 지회장님과 조성돈 고문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 모두 군산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시민문화회관을 예총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건물도 살리고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는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황 : 아시다시피 시민문화회관은 현대 건축의 선구자인 고 김중업 선생의 마지막 유작으로 훼손, 철거하거나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예총의 입장입니다. 잠깐 김중업(1922~1988)선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본과 프랑스에 유학하여 건

축학 공부 뒤 귀국 후에는 홍익대에서 건축미술학과 교수로 지내다가 유럽으로 진출하여 프랑스 문화부의 고문건축가로 계셨고,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하버드대 객원교수로도 활동하셨고요, 생전에 프랑스국가공로 훈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문화상, 산업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서강대본관, 주한프랑스대사관, 제주대 본관, 삼일로빌딩, 육군박물관 등 유수한 건축 작품을 남길 만큼 국내외에 걸쳐 건축계의 보배로 인정받는 분인데 군산시민문화회관 역시 그분 생전의 영혼이 깃든 건축물로서 일각의 철거 주장은 사려 깊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군산의 근대역사 건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의 관광산업 자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지한 생각으로 철거했던 구 시청, 구 경찰서, 구 역사를 두고 뒤늦게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에서 보듯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역사성이 큰 건축물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함께 후대의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조 :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경우 일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의미를 두어야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해도 예술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훼손, 철거되거나 건축 작가가 의도한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탈바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황 : 저희가 시민문화회관 활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2013년도 신축 개관한 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은 1,200석의 대공연장과 400석 규모의 소공연을 갖춘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건물입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이나 대학생, 일반 동호회 등이 사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이고, 1층, 3층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전시공간도 사실상 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시민문화회관은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약 800석 규모의 중간급 공연장을 갖춘으로써 유·소년 및 중·고, 대학생, 동호회, 일반시민들까지 상시 공연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 예총 사무실이 예당 내에 있어 저도 잘 압니다만 공연시설은 국내 어디에도 손색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으나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미술, 사진, 문학계의 예술인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전시장 확보 문제로 시내 이곳저곳을 헤매는 일이 다반사가 되다보니 볼멘 목소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종합발표회 장소만 예를 들더라도 금전적 부담도 적는데다가 객석 규모나 전시장 활용 면에서도 시민문화회관이 훨씬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황 : 저희 예총 군산지회는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8개 지부를 두고 상시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비롯한 수시 강좌도 열고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근대역사박물관에서부터 은파까지 볼거리가 연결되고 도시 공동화현상을 막아 예전처럼 주변 상권이 살아나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군산청년문화 및 생활문화예술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등 군산문화예술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 사실 인천광역시만 보더라도 (수봉)문화회관을 예총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지자체가 문화예술전문단체에게 문화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간 군산시에서는 시민문화회관을 처리하고자 수익계약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한바 있으나 무산됨으로써 유지관리에 재정 부담만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나 언론에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나운동상가변영회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가능한 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모색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심의회에서 유보된 바 있고 지금 진행 중으로 알려진 활용방안 용역 결과도 불투명한 등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학관, 미술관, 생활과학체험관, 종합안전체험관, 대중공연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종교단체에서 매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시의 재정문제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올해에는 어떠한 방

법으로라도 건립 본연의 의미와 용도에 맞게 활용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값진 문화유산으로 남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 :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지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높이고 있고 방경미 시의원의 경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를 질질 끌지 말고 문화예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해 아마추어 공연가들의 공연과 많은 시민들이 창작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예총에서 위탁관리가 성사된다면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성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새롭게 생동하는 시민문화회관, 예술인들에게는 많은 전시, 발표 기회가 부여되고 시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회에서는 얼마 전 정기총회를 갖고 ‘군산시민문화회관 되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서명부는 종료 되는대로 군산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문화예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우리 군산도 지금 앞날을 내다볼 때 문화예술이 질적, 양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리라 하는 것은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 육성은 지자체의 공적 자산을 키우는 일이며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무쪼록 시민문화회관이 군산예총의 위탁관리로 결정되어 군산 문화예술 발전의 또 하나의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산지회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내)
T. 063)462-1234



■ “GM 군산공장을 반드시 정상가동하라!”

군산시 시민사회단체,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상가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일 자유총연맹 등 200여개 단체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정상가동’이라는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짧지만 강력한 인사를 남겼다. 아울러 문용목 지역경제과장의 한국GM에 보여준 30만 군산시민들의 노력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 설명에 이어 이범로 군산공장노조 자문위원의 ‘고임금 강성노조’라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해명을 통해 군산시민들이 하나 되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렸다. 결의문을 낭독한 김용한 교수와 군산공장 상생협의회 송미숙 위원장은 “GM이 떠나면 군산은 다 죽는다”며 “피눈물 흘리는 군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군산공장 정상가동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한 회원은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현대중공업에 속고, GM군산공장까지 폐쇄하면 이제 죽은 말이니”며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 “명품관광도시, 군산으로 놀러오세요!”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해 적극적인 홍보로 큰 호응 얻어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근대문화유산 및 천혜의 관광지인 고군산군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군산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중심으로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며, 설치된 전용부스에서는 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등 관람객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산관광 퀴즈풀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현장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상품으로 지급받는 행사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첫 관광박람회 참여인 만큼 관

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쌍방향 정보 소통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여러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타 지자체와의 정보교류에도 힘써, 명품 관광 도시 군산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450여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관람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전남·광주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걸음은 마을 청소부터!”

째보선창변영회, 지난 26일 째보선창 일원 청소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째보선창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째보선창변영회’는 지난 26일 도시재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을 청소를 실시했다. 마을 청소에 참여한 회원들은 “째보선창 일대를 돌며 청소를 하다 보니 마을 곳곳에 산재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다”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주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마을 재생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봉 째보선창변영회 회장은 “낙후된 째보선창을 살려내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째보선창을 발전시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솔선수범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태문 도시재생과장은 “째보선창변영회의 활기찬 도시재생 활동이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개발사업과 다르게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째보선창변영회’는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째보선창 일대의 주민 30여명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공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결성된 주민공동체이다.



■ 농민상담소, 농업경쟁력 강화의 전초기지로 키운다!

군산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군산시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군산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상담기록부의 입력방식을 일원화해 누적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향후 정책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상담소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적인 접근으로 실효성을 높이며, 매주 2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업무연찬을 통해 진행사항과 지역농업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과 8월에 군산농업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사업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과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 제1차 업무연찬을 통해 보여준 상담소장들의 역량을 볼 때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읍면동 농민상담소는 오는 4월까지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그 자료에 의한 활성화 방안을 5월중 발표하며 매년 12월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군산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국가예산 확보 총력 다짐!

2019년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달성에 이어 2019년에도 1조원 시대를 공고히 하여 한국지엠 사태 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8일 상황실에서 ‘2019년도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총 290개 사업, 1조 837억 원의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된 28개 사업(1,053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과 추진일정 등이 보고됐으며 구체적인 국가예산 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군산시의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총 290건의 1조 837억 원으로 신규 사업 28건 1,053억 원, 계속사업 262건 8,784억 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 기술 기반구축사업(20억 원) ▲군산~어청도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건조(38억 원)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개설(70억 원) ▲군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0억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5억 원) 등 28개 사업이며, 계속사업은 ▲중대형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36억 원)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70억 원)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20억 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124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32억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100억 원) 등 262개 사업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정부의 업무보고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과 순기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순조로운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군산시 산업전반이 위기상황에 빠지고 경제침체가 가중되는 현 시기에 국가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인 만큼 간부공무원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목표를 달성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라!”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맛집 신청 받아

군산시는 고군산연결도로 완전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선보이고, 지역 음식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신규맛집 발굴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맛집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맛집 신청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 외식업지부 등의 추천 또는 일반시민의 설문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자체심사를 통해 평가대상 업소를 선정할 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맛집 지정심의를 연다. 신규 맛집 지정기준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음식 맛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용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이다.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맛집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군산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책자 제작을 통해 대표음식 소개 등을 비롯한 맛집의 자세한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서사시로 쓰는 동화>

하늘중 바다중

웅이와 종이는
대왕바위 마을 바닷가 언덕 오두막에서
속 정이 깊은 옥쟁이 할매와
엇질이 아빠랑 함께 산다네.
대왕바위 깊은 바다 용궁 선녀가 되었다는
엄마를 그리며 산다네.

X-4. 웅이와 복실이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디 가셨는지 집안은 한 밤처럼 조용합니다.

이런 때는 꼭 무거운 미역 꾸다리 짐을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웅이는 울타리 그늘 아래 깔아놓은 가마니에 쪼그리고 앉아

복실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더위에 지쳐 혀를 길게 빼어 물고

축 늘어져 잠든 복실이를 바라보던 웅이는

사르르 배가 아파왔습니다.

뭘 먹고 싶어진 것입니다.

부엌문 앞 처마에 대롱대롱 매달린 소쿠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삐걱거리는 나무의자 위에 올라서서

밥 소쿠리를 내렸습니다.

물나물 만찬에 데굴데굴 구르는 보리밥이저만

웅이는 참으로 맛있습니다.

배를 두 주먹으로 통통 쳐 봅니다.

‘이눔아야, 쪼만한 게 우짢 밥을 그리 쳐묵노. 앙?’

화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식중아 맹꽁아 하고 놀려댈 종이도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웅이는 일부러 배에 힘을 잔뜩 주고는 다시 통통 배를 치다가

저도 모르게 빙긋이 웃어버립니다.

‘그래, 내 배는 맹꽁이 배다.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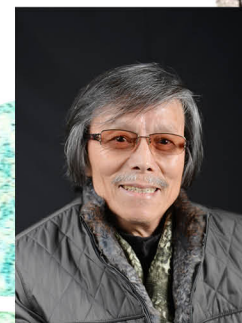
웅이는 먹던 밥을 남겨 가지고 잠자는 복실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쪼그라진 복실이 밥그릇에 주먹만큼이나 되는 보리밥을 부어놓고는

복실이 배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립니다.

“니도 배고플기다. 이거 묵고 내강 놀러 가제이.”

다음호 X-5에 이어집니다.



여울 김준기

음식이 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갈비집 앞의 풍경은 이렇게 묘사되지요. 배부르게 먹고 트립하며 문을 나서는 아저씨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은 이쑤시개를 하나씩 들고 마구 마구 쑤서대며 꾹꾹거리고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해 보이고, 이를 쑤시고 있는 당사자들은 불편하고, 음식이 자주 끼다 보면 충치가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주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아주 느린 속도로 충치가 생기고 치주질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이 끼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음식이 안 끼는 구강 구조는 서로 닮았지만, 음식이 끼는 사람들의 입안은 저마다의 이유로 음식이 끼이게 됩니다. “불행”한 단어로 말하지만 내부 사정은 제각각 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음식이 끼는 문제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음식이 끼는 원인은 제각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음식이 끼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지 않는 사람의 치아의 특징들을 말하자면, 치아들이 가지런하며 서로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고, 잇몸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이 사이 사이에 잇몸이 꼭 차 있고, 흔들리는 이가 없고, 당연히 벌어진 곳이 없어



야 하겠고, 위아래 이가 서로 짝꿍이 잘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음식이 끼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잇몸이 얇아져 이 사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나, 흔들리는 이가 있거나, 위아래 치아들 중에 짝꿍이 맞지 않아서 위에 이는 내려오고, 아래 어금니는 위로 솟아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 미

묘하면서 음식이 끼는 원인 중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금니에서 교합간섭이 있는 경우입니다. 교합은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와 조건을 말하고, 교합간섭은 위아래 이가 서로 맞물려서 음식을 씹을 때 서로 닿지 말아야 할 부분이 닿거나, 서로 맞물려야 할 부분이 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아래 이가 조화롭게 물리지 않고 부조화스러운 조건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 이가 조화롭게 물린다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상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열 가지 넘는 세부 사항들이 동시에 맞아야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음식이 자주 끼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다음 달에는 원인에 따른 해결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향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정부가 새정부출범후 일부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이자 보유세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라 함은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그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를 감안해 공식입장을 내놓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두가지 방법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시세에 근접하게 높이면 보유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도 2009년 이후 최대 상승치인 전국 평균 6.02% 올랐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60%, 종부세는 80%를 적용해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100%까지 끌어올리면 보유세는 높아진 만큼 증가하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유세수를 약 3조2000억원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실거래가반영률을 현행 60%대에서 70%로 각각 조정하면 2조7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지하려고 전국 모든 부동산의 보유세를 일괄인상하는 방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서 보유세가 증가한다면야 반대할 명분이 없겠지만 군산지역같이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하락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여서 세금만 더 징수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부동산 시장 동향



임대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많은 분쟁 사유 중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 들어 간단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某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살던 집까지 경매로 날렸다. 하는 수 없이 친척들의 도움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乙소유의 빌라 반 지하를 세 얻어 이삿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한 후 막상 이삿짐을 내려놓고 보니 이건 집이 아니라 움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벽에서 물은 줄줄 흐르는데, 방 네 구석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끼어서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너털거리고 하수관이 막혀 물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퀴벌레는 이곳저곳에서 게릴라들처럼 나타나서 어린이들을 놀라게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렇다고 딱히 갈 곳은 없고... 某甲은 집 주인에게 급히 연락을 하여 하자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싸지 않느냐, 고 하면서 이해하고 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에 某甲은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고,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기한 전에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1. 웬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

2. 위와 같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3.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보증금반환은 소송으로 해야 한다.

4. 임차인이 하자보수공사를 모두 하고, 공사비는 월세에서 공제 해 버린다.

-해설-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심심찮게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목적물이 노후 되거나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어 생활에 크게 불편하게 되었다면 그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구 등 통상적이고 간단한 수선과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의 경우 너무 광범위한 수리가 될 수 있다하여도).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하자라면 당연히 그 하자보수나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때에는 계약위반이 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고집을 부리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위 2, 3, 4번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간에 신경이 예민해져 자칫 좋았던 관계에 균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 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ME TOO #WITH YOU



최근 서지현 검사 본인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계기로 미투운동이 전국에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 드러난 피해자만 11명이다. 그들은 성추행 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에 관한 성추행 고발 그리고 텔런트 조민기,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최용민 등의 원로 배우들의 성추행과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해외 봉사 중 성폭행 미수사건 등 문화계와 출판계, 영화계, 체육계, 기업계, 대학가, 종교계 등 숨겨져 있을 뻔 했던 공간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성화봉송 같은 릴레이 고발이 연이어 줄을 서고 있으니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한편 분노와 수치를 감추며 살아왔던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피해를 고발하며 대중 앞에 선 이들, 우리사회는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마음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미투운동이 본격화 되자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양면의 동전처럼 대두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그 긍정적인 면¹⁾은 성적인 피해가 공론화 되었고,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에게 뿌리내려진 악습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미투운동의 대부분의 사례는 권력과 위계를 사용한 성범죄에 관한 것 인데, 이러한 가해자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미투운동을 통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들에게서 권력을 제거하여 범죄의 연쇄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후대의 권력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어 관습적인 성희롱 문화가 사라지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면²⁾은 미투운동문제 = 페미니즘 문제로 인지되기 쉬우며 이는 곧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성들은 여성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 남성 직장인들이 펜스 물을 채택한 것 처럼 여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취업 및 승진은 물론이고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투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제대

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미투 운동은 오히려 여성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어쩌면 미투운동의 본질은 단순 성추행, 성폭행관련 여성의 문제로만 귀속되지 않고, 동일 집단내 권력형 갑질 문화의 고발과 이를 통한 집단내 민주적 문화의 정착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갑질문화로 침해된 생존권, 노동권,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상의 인간으로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 그리고 '내로남불'하며 위계와 권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짓밟는 행위를 근절하는 경고로 이 운동이 사회저변의 인식전환 운동이 되어 강자의 일방적 지배를 약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미투(me too)에서 당신과 함께 할 것(WITH YOU)이라는 운동으로 확산되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1) 나무위키 '미투운동'
- 2) 나무위키 '미투운동'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서희정 화백 초대전’ 전시

들꽃이야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4월 29일까지 박물관의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 ‘들꽃이야기’라는 주제로 구상화가 서희정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희정 화백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군산여류작가회장, 군산구상작가회장, 대한민국코파글로벌 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서희정 화백은 계절마다 찾아오는 ‘들꽃’을 화폭에 담아 바쁜 일상 중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들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강렬한 색과 마티에르기법으로 표현한다. 이에 그녀의 작품에는 꽃으로 표현된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서희정 화백은 ‘들꽃 마음에 담다’, ‘댄드라미 이야기’, ‘노랑이 물든 마을’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군산의 지역작가를 소개하고, 군산의 문화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구상화가 서희정의 작품을 통해 구상화의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미갤러리는 복원된 근대건축물로 1층은 군산출신 ‘故하반영화백’ 관련 화구전시와 관련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2층은 연중 절반은 故하반영화백의 작품이 상설전시되고, 잔여 6개월은 군산의 예술함양을 위해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쩌다 예술’ 시작

창의문화예술교육으로 예술가와 함께하는 10개 과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군산시의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민예술촌(대표 박양기)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쩌다 예술’이 오는 3월 6일부터 7월까지 상반기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어쩌다 예술’은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며 더 나아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별·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어쩌다 예술’은 약 3,000여명의 군산시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교육 참여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내재되어 있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과 함께 하며 예술 강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매해 추진되는 발표회는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금번 상반기 교육에는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를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통분야(청소년탈춤, 신나는 풍물, 민요·판소리), 공예, 미술(만화), 음악분야(가곡, 청소년 색소폰), 문학분야(시낭송)와 문화예술로 문화다양성을 체득할 수 있는 샌드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도심 지역민들의 수요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예술건강치유(힐링요가)가 진행된다.

한편, 군산시민예술촌은 향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모집인원	일시	강의내용
전통	탈춤	청소년	10	토 (10:00~12:00)	탈춤 배우기
	신나는 풍물	시민	15	화 (19:00~21:00)	풍물의 이론과 실기
	민요에서 판소리	시민	15	금 (10:00~12:00)	민요와 판소리 배우기
공예	꼼지락 공예	시민	15	화 (10:00~12:00)	실생활에 필요한 공예
미술	도전!나도 만화가	시민	15	금 (19:00~21:00)	만화이론 및 실습
음악	정다운 가곡부르기	시민	15	화, 목 (11:00~12:00)	발성 및 가곡익히기
	색소폰	청소년	10	토 (10:00~12:00)	색소폰 악기 배우기
문학	시낭송반	시민	15	수 (14:00~16:00)	발성 및 시낭송
문화 다양성	빛과 미래로 그리는 샌드아트	시민	10	금 (19:00~21:00)	샌드아트 기초 및 기법
지역주민	힐링요가	지역주민	8	수, 금 (10:00~11:00)	요가를 통한 심신 수련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2018년 새해가 밝은 1월부터 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 15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진로결정장에 극복 프로젝트'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나도 모르는 나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어가 된 '진로 결정장애'라는 말은 다소 유머러스하면서도 입시 경쟁과 과열로 인해 '진로'보다 '성적' '직업'을 먼저 고민하는 청소년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단어이다. '뭐 하면서 사는 것' 이전에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먼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 달그락 청소년들이 발벗고 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담당 실무자가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기획·진행하는 방식과는 달리 '나도 모르는 나에게' 프로그램 기획·진행의 주체는 청소년과 실무자, 그리고 자원활동가가 함께 어우러졌다. 기획을 담당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분야를 선정하고, 자원활동가와 해당 분야마다 토론과 논의를 거치며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2017년 12월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청소년들을 찾아다녔고 2018년 1월6일, 진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달그락달그락에 한 데 모였다.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의 행복 또한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예요." 진행자와 참가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정의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나의 행복 vs 남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자신의 행복을 인지하는 과정, 미래와 진로 관련 마인드맵 제작 및 공유 등 다채로운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는 그 동안의 활동 소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희망사항을 발표하였다. 우동수 청소년(18)은 "나의 장점과 행복의 기준을 곱씹어 생각해보는 계기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

였고, 마형강 청소년(16)은 "나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로인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김순용 청소년(18)은 "행복이란 단어가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와닿는 단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발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앞으로 인문학 자기기구로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고 의미있게 자기의 진로와 관련하여 펼칠 활동을 기대해본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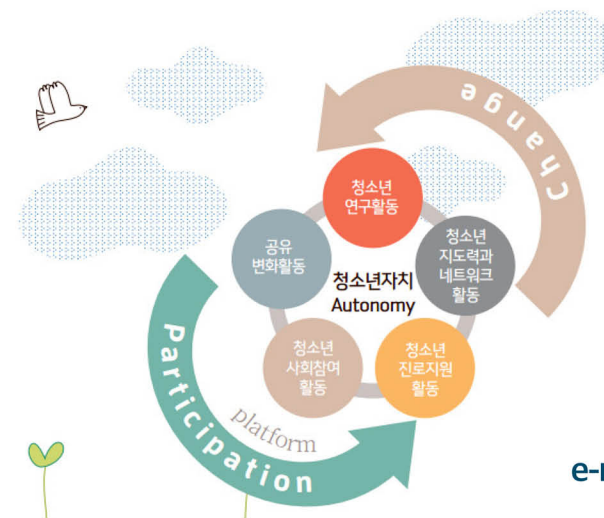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해외 초청공연 양상블 코코펠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벨리타양상블 정기 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이승환 '공연의 끝 : HighEnd' - 전주 피아노 다이아리가 추천하는 Next Generation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의대 관현악단 제3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합창단 제93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바다탐험대 - 옥토넷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안나 카레니 나 - 전주 드림청소년오케스트 라와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바다탐험대 - 옥토넷 군산예술의전당						2018 Spring Concert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 신인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 신인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교향악단 제128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2018 천정엄마와 2박 3일 군산예술의전당 아트스테이지소리 ep61 : 문문 누리챗버양상을 창단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 천정엄마와 2박 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프라노 고선영 전현지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합창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제2회 stem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헨젤과 그레텔 군산예술의전당 신춘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 30주년 기념 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이윤정 피아노독주회 문보미 피아노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The collage features 12 distinct concert posters:

- Top Left:** Anna Karenina (안나카레니나) by Anna Karenina. Dark, dramatic theme with a figure in a black dress.
- Top Middle-Left:** Pelita Ensemble Concert. Pink background with a bouquet of flowers and the date 03.17pm.
- Top Middle-Right:** Dongmulwon (동물원) 30th Anniversary Concert. White cake with red strawberries and animals.
- Top Right:** Bada (바다) 30th Anniversary Concert. Blue background with cartoon characters and the date 3.10.
- Middle Left:** Moon Moon (문문) 03.24. Photo of a man in a denim jacket.
- Middle Right:** HIG H (이승환) 3RD. Photo of a man with sunglasses.
- Bottom Left:** Piano Diary (피아노 다이어리) 03.20. Photo of a woman.
- Bottom Middle-Left:** Spring Concert (봄의 콘서트). Photo of a woman in a purple dress.
- Bottom Middle-Right:** Piano Diary (피아노 다이어리) 03.20. Photo of a group of people.
- Bottom Right:** Ensemble Kokopelli (앙상블 코코펠리). Photo of a group of people.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난 전시회
 2018-03-02 ~ 2018-03-04
 야생포토60 전시회
 2018-03-31 ~ 2018-04-0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3.23(금)~04.05(목) 섬진팔경 송만규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나눔의집
 군산시옥구읍옥정리 88-1
 (063) 464-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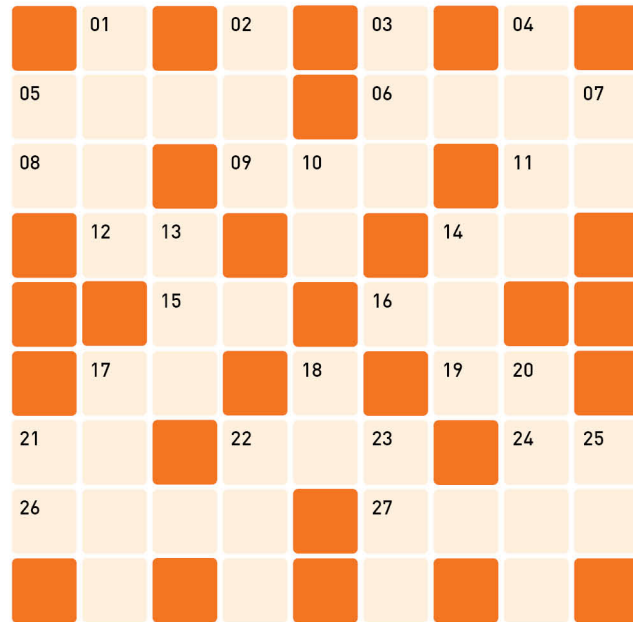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80



<제79호 퍼즐 정답>

성	골	든	글	러	브	정
은	근	짜	썩	라	디	오
정	기	권	거	만		
장	전	술	방	울	증	오
광			구			만
설	빔	집	들	이	인	상
	노	사	마	사	지	
도	르	래	공	절	도	죄
청	방	탄	소	년	단	다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5 모르는 사이에 조금 씩 조금 씩.
- 06 값을 치를 돈도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음.
- 08 가는 대오리나 싸리 따위로 결어서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 09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冠)의 하나.
- 11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함.
- 12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4 남이 모르게 감추어 두거나 소중히 간직함. ○○의 무기.
- 15 땅바닥으로 길게 뻗어나 다른 것을 감아 오르는 식물의 줄기.
- 16 설을 맞이하여 새로 차리는 옷, 신 따위.
- 17 어려움과 쉬움.
- 19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란 뜻에서 직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21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
- 22 당근.
- 24 복이 많음. 또는 많은 복.
- 26 이 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 27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하늘 높이 띄움. 또는 그런 놀이.

▶ 세로 열쇠

- 01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부인을 그린 초상화.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하다.
- 02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현재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여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
- 03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현상.
- 04 날로 달로 자라거나 발전함. 05 한 겨레나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 07 음식점에서 음식과 바꾸어 먹도록 되어 있는 표.
- 10 편들어 허물 따위를 감싸 줌. 아이를 자꾸 ○○해 주면 버릇만 나빠진다.
- 13 움푹 패어 물이 권 곳. 늪보다는 훨씬 작다.
- 14 전주의 대표적 전통 음식.
- 17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 국보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 18 그 날 그 날 받는 품삯.
- 20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굵은 밧줄을 마주 잡고 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 21 타고 있던 차에서 내림.
- 22 푸른 잎 가운데 피어 있는 한 송이의 붉은 꽃.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여자.
- 23 탄소의 함유량이 85~95%로 연기를 내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탄. 화력이 강하고 오랜 시간 연소함.
- 25 바둑을 둔 후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놓아 보는 일.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호 소 문

전북 경제 파탄!! 한국GM 군산공장은 반드시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500만 전북 출향민과
200만 전북도민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군산공장은 전북 경제의 심장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민에게는 단순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20년 동안 애환을 함께 해온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와 함께 전북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향토기업이라 자부했고 전북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2011년 군산수출 52.5%, 전북수출 30.4%)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경제 몰락을 의미하며, 군산시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군산공장 폐쇄로 무너지는 전북경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200만 전북도민을 충격을 넘어 패닉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대폭 증가한 상태에서 군산공장과 관련된 1만 3000여명이 실직한다면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가 붕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산시민의 피눈물 'GM이 떠나면 다 죽는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GM이 떠나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GM살리기 결의대회와 범도민 GM차 사주기운동을 펼치고 관공서와 유관기관은 앞장서 GM차를 구매하는 등 군산공장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군산시민은 지난 2006년 매항리 미군전용 사격장문제로 정부와 주한미국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안보와 한미우호차원에서 직도사격장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우호 최고책임자인 미국대통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지지' 발언으로 군산시민에게 좌절과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20여 년간 GM을 가족처럼 여기며 전폭적인 지지와 깊은 애정을 쏟아 부었던 군산과 전북도민은 GM의 일방적인 폐쇄통보로 피눈물을 흘리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0만 군산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가동중단이었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입니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원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군산공장 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전북경제와 피눈물을 흘리는 군산시민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애원합니다. 부디 한국GM 군산공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수도권 300만명을 포함한 전국의 500만 전북출향민과 200만 전북도민이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8. 3.

전라북도·군산시·전라북도의회·군산시의회·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군산상공회의소·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군산시지회·군산대학교 총학생회·군정대학교 총학생회·전주비전대학교 총학생회·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사)군산시새마을회·(사)바르게살기운동군산시협의회·(사)해병대전우회 군산지회·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군산지역협의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산시자율방범대협의회·군산시이통장연합회·군산청년회의소·군산발전협의회·(사)새군산포럼
(사)군산발전포럼·군산시의사회·(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군산지부·(사)소비자교육중앙회·군산시 약사회·(사)전북자동차포럼
군산시민체육회·군산환경운동연합·한국음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군산의미래를여는시민회의·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문화·군산시인구증가운동협의회